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의 작가들

셰익스피어에서 이안 맥키완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간절한 사랑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테스의 삶을 무지배하게 짓밟는 알렉에 분노를 느끼다가도 히드가 제멋대로 자란 요크셔의 황무지 위에 서있는 워더링하이츠에서 복수극을 펼치는 히드클리프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의 삶을 그려본다. 또 긴긴 겨울밤이면 살인과 맞서는 할머니 제인 마플의 활약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보기도 한다. 영국문학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면, 거기 수많은 인생 드라마가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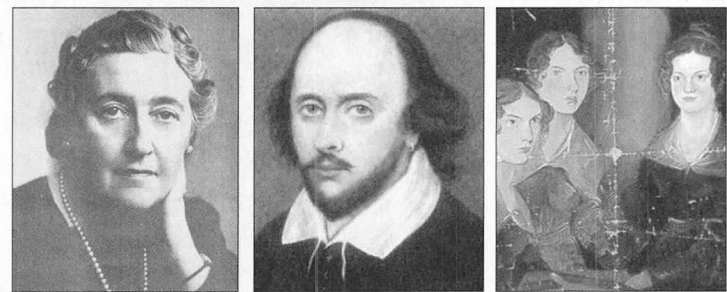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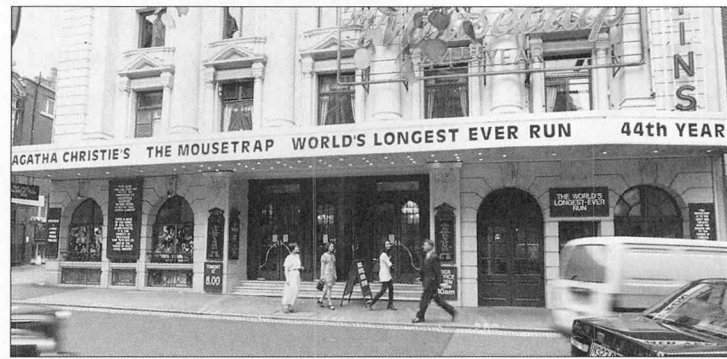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최다 번역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된 영국작가는 단연 애거서 크리스티가 손꼽힌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은 셰익스피어보다 14개가 더 많은 103개 국어로 번역돼 5억부 이상 팔렸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목록에 등록된 애거서 크리스티의 번역서는 모두 294권이다. 애거서 크리스티가 생전에 발표한 추리소설이 모두 86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작품이 평균 3번 이상 되풀이돼 출판됐음을 알 수 있다. 많이 번역된 소설은 역시 '빅 4'로 꼽을 수 있는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오리엔트 특급살인》·《ABC 살인사건》·《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이고 50회 생일을 맞아 출간된 《예고살인》도 이들 작품에 버금가는 의외의 결말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작품 중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쥐뿔》이다. 자신의 소설처럼 기이했던 실종

사건으로 유명한 크리스티는 2, 30년대 골든에이지 추리소설의 대표 작가로 매년 같은 시기에 장편소설을 발표하며 꾸준히 독자를 만들어간 덕분에 영미 독자들은 페이지 펄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책을 갖게 됐다.

194권이 번역출간돼 우리나라에 두번째로 많이 소개된 영국 작가는 당연히 셰익스피어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대사가 지니는 다의적인 성격 때문에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작품으로 정평이 있다. 우선 여러 종의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는데 그 중 셰익스피어 탄생 4백주년이 되던 1964년 김재남 교수가 최초로 번역한 《셰익스피어대전집》이 손꼽힌다. 김교수는 71년 두번째 교정판출, 95년 세번째 교정판출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64년 정음사에서 나온 《셰익스피어 전집》(정병준 옮김)과 82년 박문서관과 학력개발사에서 각각 출간한 《셰익스피어 전집》(김영목, 한용환 옮김) 등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헨릿》·《로미오와 줄리엣》·《리어왕》의 순으로 자주 번역됐다.

단일 작품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으로 90여권 정도 번역됐다. 19세기 고딕소설이 가진 음산한 분위기와 악마적 주인공 히드클리프가 펼치는 복수극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인간의 심리세계를 세밀하게 묘사해 19세기 작품이면서 19세기에 머물지 않는 소설로 평가받는다. 에밀리의 언니인 샬로테 브론테의 《제인 에어》와 토마스 하디의 《테스》 역시 그에 버금가는 사랑을 받아 국내 독자들은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19세기 영국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H. 로렌스와 서머셋 모옴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D.H. 로렌스의 작품은 《아들과 연인》·《채털리부인의 사랑》이 많이 소개됐는데 《채털리...》은 이 작품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50권 이상 번역돼 나온 서머셋 모옴의 《달과 6펜스》·《인간의 굴레》 역



크리스티의 《쥐뿔》이 44년째 연중무휴로 상연되고 있는 런던의 세인트 마틴 대극장. (자료사진/영국문화원 협찬). 왼쪽부터 애거서 크리스티, 셰익스피어, 브론테 자매들.

시 영국의 문학작품 중 낮았다.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폭풍의 언덕》

반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모험》을 비롯한 추리소설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지킬박사와 하이드씨》,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찰스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크리스마스 캐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는 청소년용으로 많이 번역된 모험소설이다. 영국문학의 이 전통은 007시리즈를 쓴 이안 플레밍에게 이어졌다. 그밖에 존 반안의 《천로역정》,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밀턴의 《실낙원》 등도 많이 번역됐다. 시 쪽은 그다지 번역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바이런만이 그 명성 덕택에 여러번 번역됐다. 또 《미들마치》의 조지 엘리엇,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오스카 와일드, 《사랑의 종말》의 그레이엄 그린, 수상록이 여러번 번역돼 나온 프란시스 베이컨, 《나만의 방》의 버지니아 울프와 시인으로는 T.S. 엘리엇·W.B. 예이츠·워즈워드·키츠·셸리·블레이크 등이 여러번 번역돼 우리와는 가까운 편이다.

가장 친숙한 동시대 작가는 존 파울즈와 노벨문학상 수상자 윌리엄 골딩이 손꼽힌다.

《콜렉터》는 소개상의 선정성과 이를 소재로 국내에 공연된 연극 덕택에 6권 이상 번역됐지만, 오히려 이 작가의 진정성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현대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중위의 여자》를 비롯해 《만티사》·《마구스》 등 파울즈의 대표적인 작품은 거의 번역됐다. 윌리엄 골딩의 경우, 수상작이라는 이유로 《파리대왕》이 22권이나 중복출판되기도 했다. 여성주의적인 글쓰기를 보여주는 도리스 레싱은 대표작 《마사 케스트》·《황금 노트북》·《생존자를 위한 비망록》 등이 번역돼 비교적 국내에 많이 소개된 여성작가다.

69년 부커 맥키벨이 제정하고 영국도서연맹이 주관하는 부커상 수상작가의 작품 역시 활발하게 소개됐다. 이들 중 영연방 출신인 V.S. 네이폴과 셸먼 루시디는 《미겔 스트리트》·《세계 속의 길》 등 7권과 《무어의 마지막 한숨》 등 3권이, A.S. 바이어트는 최근 번역된 《바벨탑》 등 4권이 번역됐다. 부커상 수상자 외에 많이 번역된 영국작가는 앤터니 버제스와 줄리안 반즈가 있다. 앤터니 버제스는 《클라위크 오렌지》를 비롯한 4권이, 줄리안 반즈는 《플로베르의 앵무새》 등 데뷔작과 최근작을 제외한 4권의 책이 번역됐다.

—김연수 기자

<국내 번역된 부커상 수상작품>

수상연도	제목	작가	출판사
71	자유국가에서	V.S. 네이폴	문학세계사
74	보호주의자	나딘 고디머	지학사·하서
78	바다여, 바다여	아이리스 머독	문예출판사
80	통과의례	윌리엄 골딩	한마음사
81	한밤의 아이들	셸먼 루시디	영학·하서·행림
84	가을호텔	아니타 브루크너	눈
89	남아있는 나날	가즈오 이시구로	세종서적
90	소유	A.S. 바이어트	동아출판사
93	패디 클라크 하하하	로디 도일	문학사상사
97	작은 것들의 신	아룬다티 로이	문이당
98	암스테르담	이안 맥키완	현대문학사